

지난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갈것을 호소하는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련이어 발표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북과 남사이에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가 합의되는 등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다. 이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하여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진심어린 제안과 성의있는 노력을 함부로 모독하고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는 언행들을 일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가자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에 해방을 놓고있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말해줄수 있는가.

김 평 수: 우리가 중대제

## 미국은 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가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김평수와 의 대담 —

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들을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을 호소한 직후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은 남조선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2월말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벌려놓을것이라고 떠들었다. 이자는 공화국의 중대제안에 대해 《위구심》이니, 《위협》이니 하고 겹고들면서 《다양한 세나리오에 대응한 구체적인 계획》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미국회 상원의원이 남조선을 행각하였는데 그도 역시 우리를 겹고들면서 《북과의 협상과정에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것은 효과가 없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미국무성 부장관 번즈와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도 역시 남조선을 행각

하여 《미래에 취할수 있는 북의 무모한 행동과 추가도발의 위험성》을 떠드는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가안정보장국 장관이 비공개로 남조선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나 《북정세》 등을 집중론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된 지난 5일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편대들을 남조선에 공개적으로 들이밀어 공화국에 대한 핵타격연습을 벌려놓아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과 충음을 촉발시켰다.

1960년대에 남조선에서 통

《5.16군사쿠데타》를 조작하여 그것을 가져없이 억누른것도 미국이고 1970년대 7.4공동성명발표로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설레일 때 분별주의적인 《교차승인론》과 《두개조선》정책으로 그에 차단봉을 내리게 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1980년대 북과 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가 시작되고 예슬단과 고향방문단이 오가게 되자 미국은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확대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해쳤으며 1990년대에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북침전쟁연습의 재개와 반공화국책동으로 그 실현을 가로막아나섰다.

2000년대에 들어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을 부

추겨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종계 발전하는 북남관계에 난판을 조성하려고 책동한것도 바로 미국이다.

기자: 그러면 미국이 왜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해 말해줄수 있는가?

김 평 수: 우선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뿌리깊은 적대의식, 반공화국압살정책에 기인된다. 미국은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우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공화국을 없애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 1950년대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최근 미국방장관이 공화

국에 대해 또다시 그 무슨 《강대국가》니 뭐니 하였는데 이것이 지난 2000년대 부위행정부의 이른바 《악의 축》발언의 연장선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의 속심과 관련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수독점제벌들에 의해 유지관리되는 침략과 약탈의 국가라는것은 세상이 알고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과 《도발》을 구실로 남조선에 군 3만명에 달하는 미군을 항시적으로 주둔시켜놓고 이른바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하에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돈을 남조선으로부터 뜯어내고 막대한 군수물자들과 첨단전쟁장비들을 팔아 리득을 얻고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수십대에 달하는 《F-35》스텔스전투기를 팔아주기로 한데 이어 군 10여차에 달하

는 협상끝에 9 2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남조선에 부담시킨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이처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킴으로써 군수독점제벌들의 배를 불리우고 약화된 저들의 경제형편을 개선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끝으로 미국이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린것과도 관련된다.

다 아는것처럼 최근 미국은 《아시아북극전략》을 내놓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만일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흐름이 조성되는 경우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장애가 조성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발붙일 명분을 잃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난해 3월과 4월에 미합공모함미 조선서해에 기여하고 핵전략폭격기들이 핵타격

연습까지 벌린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최전연일대에 순환배치의 명목밑에 최신행망크와 감잠차 등을 정비한 미제침략군 기게화대대가 기여되고 《F-16》전투기를 비롯한 새로운 공군무력의 남조선배비가 다그쳐지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공화국민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이 모든것들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방해책동이 조선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과 리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적, 약탈적본성의 발로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지난 5일 북과 남의 적십자대표들은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이 발표된 후 이루어진 이번 합의를 두고 온 겨레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종계 발전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과 이른바 《대북전문가》들속에서는 실무접촉결과를 놓고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협담질하는 불순한 언행들이 마구 튀어나오고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뜨리게 하고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회로 삼기 위한것》, 《전쟁정세를 선전하기 위한것》, 《경제적리득을 획득하려는 방향》따위의 나발들이 바로 그치한것들이다.

지어는 《명분을 쌓아 추후에 관계악화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음지업》, 《기본과 상식을 중시하는 《정부》의 신념이 결실을 맺었것》이라는 말갈지 않은 소리들도 마구 불어대고있다.

상식과 체면을 넘어 신의와 량심, 도덕과廉리를 결여된 나철한 발언이라 해야 할것이다.

러종과 말해서 이번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공화국이 1월 16일 중대제안을 내놓고 최고령도자의 특명에 따라 1월 23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에게 다시금 공개서한을 보낸후에도 남쪽에 있는 《위장평화옹세》, 《도발을 위한 명분축적》 등의 로골적인 혈통기발언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어디 그뿐인가. 남조선당국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논의가 벌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과 남의 무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서해 5개섬 열섬구역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해상사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그때 이것이 대화의 손을 내민 동족에 대한 신의있고 례의있는 행동이란 말인가.

### 합동군사연습책동 중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토신문 《민족시보》가 1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책동을 중지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대제안에는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증상하는 모든 행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리산 가족상봉사업론의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북을 자극할수 있는 사격훈련을 벌린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되는지 간담다다. 더구나 사격훈련이 벌어진 지역이 남북간에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사격훈련강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런데 공화국의 통근 아량과 신의, 굳은 북남관계개선의지와 뜨거운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실무접촉결과를 놓고 남조선에서는 또다시 북을 혈통하는 못된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으니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영상과 진정을 훼손하는 악설이 마구 나돌고있는 한 상봉의 성과적진행을 론할 형편이 못된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더구나 숭고한 인도주의정신과 민족애를 안고 공화국이 취하는 동포애적조치들을 열렬히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동족대결에 리용하고있으니 겨레의 격분을 더욱 불리일으키고있는것이다.

문제는 이를 대하고 처리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언론의 자유》를 구실로 공화국의 존엄과 제도, 정책적조치들을 제멋대로 분석하여 마구 비방하는 보수언론들과 소위 《대북전문가》들의 망발을 그대로 방임해두는 속에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처사는 없다.

자기 땅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는 무뎡한 당국자들과 마주앉아 무엇을 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화국의 체제와 권위, 정책을 비방하고 시비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위도 당국이 주도하든, 언론이 벌려놓든 북의 천만군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진정어린 성의와 아량, 인내와 자체력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악질적으로 혈통고 행방하는 길로 나간다면 공화국이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배영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월 30일 대학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새 학기를 앞두고 남조선의 모든 대학생들이 서로 짜기라도 한것처럼 등록금을 낮추는 시늉을 내고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서 발표한 등록금

등록금공약의 리행을 요구

《개정부족》을 구실로 등록문제해결을 외면하고있다 단죄하였다.

당국이 더이상 돈이 없다고는 말로 대학생들과 학부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글을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외세에 의해 국토가 둘로 갈라지고 민족분열이 강요된 때로부터 어언 70년을 가까이 한다. 이러한 비극을 가져내고 어떻게 하나 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 공화국은 2014년 새해를 맞으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 전상에서 공화국의 국방위원회는 남측당국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제안하는 중대제안과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공개서한도 발표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해나갈 확고부동한 결심을 표명하였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과 대결의 력사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끝장내려는 공화국의 의지가 집약된 이러한 제안들은 지금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류의 전폭적인 지지환영을 받고있다.

그런데 미국의 고위인물들의 입에서는 이와 대치되는 실술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부장관은 《북의

도전》이니, 남조선과 《북핵문제에서의 공조실현》이니 하고 떠들었는데가 하면 그 뒤를 이어 남조선에 날아온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와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도 같은 소리를 하였다. 한편 미래평양합대사령관과 미래평양군사령관이 《북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이니, 《핵위협》이니 뭐니 하는 입배출어진 소리를 하였다. 공화국을 비방증상하는 이러한 망언들이 북남사이에 대결을 고취시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것은 두

### 핵위협, 도발은 과연 누가 하는가

말할 필요가 없다.

마지코보면 미국이 문제시하는 그 누구의 《핵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는것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이다.

미국이 북의 《핵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떠들지만 사실상 그것은 공화국이 미국에 대해 할 말이다. 다른것은 다 설명하지 말고 최근에 알려진 몇가지 사실을 놓고보자.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방부 비밀보고서에는 미국이 지난 1968년 우리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벌리던 《푸에블로》호가 공

위에 원자탄사용을 계획했었다는것도, 전후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지난 세기 50년대말에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인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무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다.》는 핵정책밑에 남조선에 1 000여개의 핵무기를 비밀리에 반입하여 도처에 비축하여놓은 사실이 대해서도 미국은 변명할 말이 없다.

지난 1월 31일 일본수상 아베는 중의원에산위원회에서 핵무기반입과 관련한 미일밀약의 존재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력대 자민당정

권이 계속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일본측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일본으로 반입할수 있다는 1960년대의 미일간의 핵반입밀약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것은 일본이 1968년 1월에 발표한 《핵무기를 제

조하지나,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과 완전히 배치되는것이다. 이렇게 배치고본 미국은 일본이 비핵3원칙을 발표하기 이전에 벌써 핵반입밀약을 하고 일본에 핵무기들을 끌어들인것이 립중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어느때 보여주고있다.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어느때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다.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허울좋은 간

### 《주인이 옷방에 가던 아래방에 가던 무슨 참견이냐?》

《임을 벌리고있는 악어는 웃고있는것 같지만 그 입은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집어삼키는 함정이 될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84년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북의 인도주의적구호조치로 하여 모처럼 북남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위커가 떠벌인 말이다.

북남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실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1960년대초 《가자 북으로, 오래 남으로, 북과 남 문젍에서!》라는 구호를 들고나섰던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통일열망을 군사쿠데타로 짓밟고도록 한것이다, 1970년대초에 북과 남사이에 7.4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조선은 하나다!》의 합성이 온 조국통일을 진감할 때 남조선의 분렬주의세력을 배후조종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본격화한것이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남북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떠들며대면서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관계개선에 췌기를 박은것도 역시 미국이다.

16.북남공동통선언의 채택으로 이 땅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졌을 때에도 미국은 북남관계개선과는 아무런 연연도 없는 《핵분열》을 내흔들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 교류사업들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그에 제동을 걸었다.

북과 남사이에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부추기며 리간질을 조성하는 미국의 못된 속통은 오늘날도 계속 드러나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발표된 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부장관은 《미래에 취할수 있는 북의 무모한 행동과 추가도발의 위험성》에 대해 떠들었으며 뒤따라 날아온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라벨도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은 《조선의 핵위협》이 미국본토뿐만아니라 조선반도의 재앙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며었다.

이것이 남조선당국으로 하여금 동족과의 관계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대결의 총대》를 내리우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소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모든 사실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어떤 립장과 태도를 취하여왔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미국은 1945년 8월 소학생이 책상에 글을 쓰고 이런 저런을 가르듯이 조국강토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분렬의 장본인이다.

민족분렬의 지난 69년이 깨우쳐주는 가장 큰 교훈의 하나는 민족을 분렬시킨 외세는 있어도 민족을 통일시켜줄 외세는 없다는 그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를 담아 공화국이 내놓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이 제시된 이 마당에서 무르익는 열매에 손가락질하는 격으로 놀아대는 미국의 간섭과 삿대질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주인이 옷방에 가던 아래방에 가던 무슨 참견이냐?》

지금이야말로 해방직후의 그날 민족단합과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자기 의사에 따라 북남을 오고간 리운형생이 그에 시비질해나선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에게 면박을 주던 그런 립장과 자세에서 온 민족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 때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작은 미군》행세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자녀들까지도 범죄의 길에 나서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 3일 10대의 남조선강점 미군자녀 3명이 동두천시의 어느 한 가게에서 음식을 사먹고나서 금고에서 현금 약 30만원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조선경찰에 덤미를 잡혔다고 한다.

송냥이는 그 새끼도 송냥이라고 살인과 강간, 폭행과 약탈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해대는 미군이다보니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그 본을 따고있다. 지금은 10대의 어린 나이여서 도적질을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소름끼칠 범죄를 저지르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이 《까마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 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할 정도로 미군은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살인과 강간, 폭행과 약탈 등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다. 해마다 《방위비분담금》을 올려 남조선인민들의 형세를 빨아내고도 모자라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을 꼬여 결코 짐승도 낮을 뽐일 치밀리는 만행을 일삼는게 바로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녀들까지 《미군》행세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동경질을 빗기며떠들며 하고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강도가 는 집안이 편안해지자면 동물이든 물고서라도 하루빨리 내쫓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강점군으로부터 받는 2중3중의 고통과 불행을 끝장내는 길은 오직 하나 제발로 걸어나가지 않는 미군을 때려서라도 내쫓는 길뿐이다.

서희

### 정보원 해체를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3일 남조선의 카톨릭교 교인들이 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하여 서강대학교에서 시국미사를 가지었다.

시국미사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선거 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불법선거를 강행한 리명박과 정보원 원장, 싸이버사범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본사기자